

살아 있는 사람의 물건

현대판타지 · 회귀 · 유품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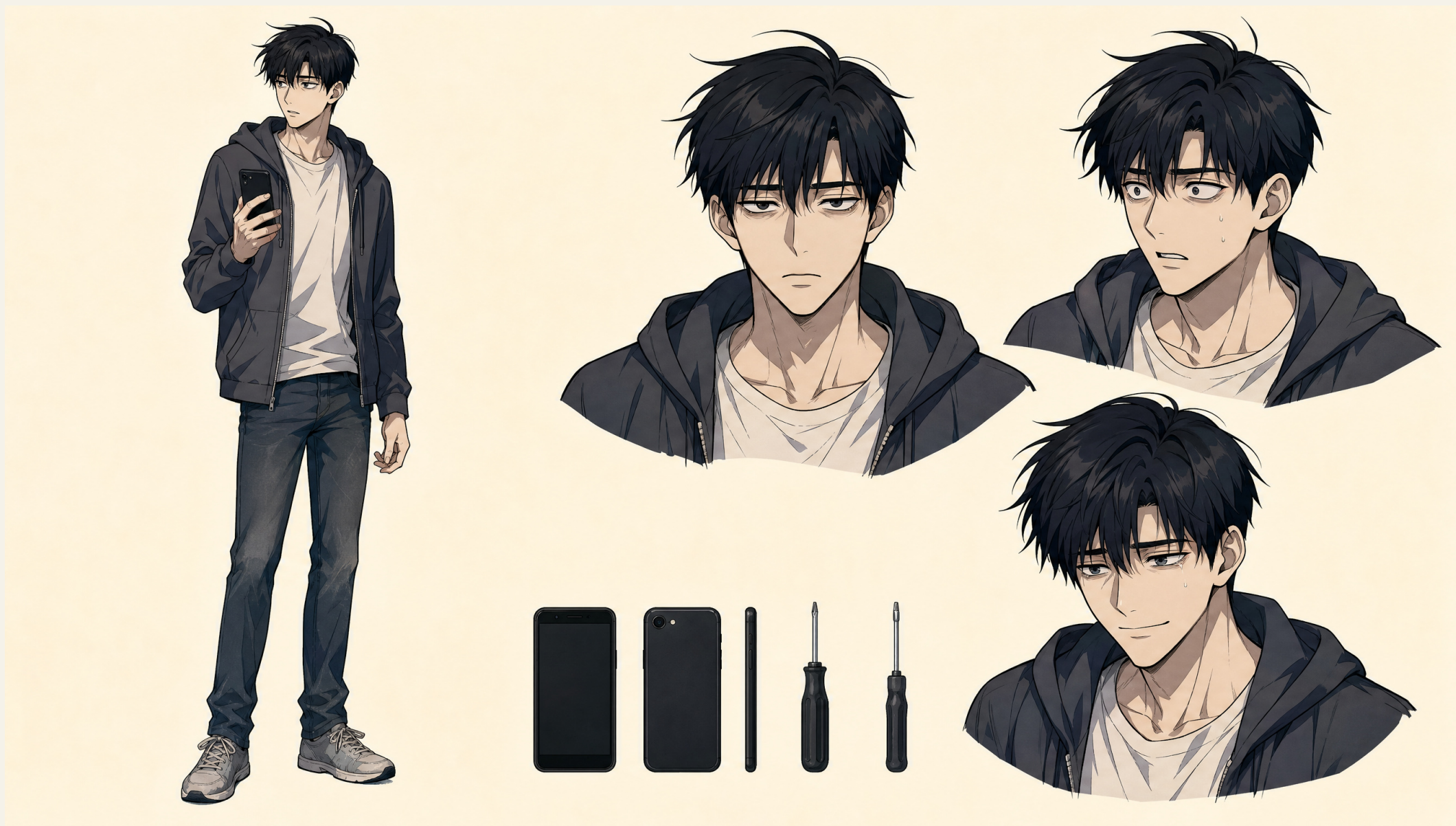
그는 보상 목록보다
사망자 명단을 먼저 외웠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이번에는, 내가 죽은 채 따라왔다.

살아남은 사람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물건들.

한태주

몸은 스물넷. 기억은 서른다섯.



BODY 24 / MEMORY 35

열한 해를 돌아왔는데,
동생은 여전히 말을 안 듣는다.

회수반에서 죽은 사람의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에 든 사진으로 가족을 찾고, 울리는 휴대전화의 전지를 뺐다. 살아 있는 동생을 다시 본 뒤로는, 손이 자꾸 떨린다.

잘하는 일

현장 사진을 외운다.
물건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못하는 일

도와 달라는 말을 한다.
동생에게 침착하게 설명한다.

늘 챙기는 것

휴대전화, 작은 공구.
쓸모없어 보여도 일단
주머니에.

“너는 나오라고!”

계획이 틀어진 이유: 동생이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갔다.

한수연

스물하나. 제과점 직원. 오빠의 유일한 가족.



ALIVE / 한수연

구하러 갔더니,
누군가를 구하고 있었다.

빵 봉투를 꼭 두 번 접는다. 길을 잘 잃는다. 겁이
나도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건 싫다. 오빠가
횡설수설하면, 일단 필요한 일부터 시킨다.

평소

"삼천 원."
사소한 돈도 잊어 주지 않는다.

위급할 때

"뭐 해. 신고해."
오빠보다 먼저 현실을 본다.

겁먹었을 때

말수가 줄어든다.
잡은 손목은 더 세게 쥘다.

“비밀번호 아직 내 생일이냐?”

오빠의 정정: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었다. 사람을 두고 못 나온 거였다.

버리지 못한 것들

시계 하나, 빵 하나, 전화 한 통.



01 / 멈춘 전자시계

열두 시. 전지는 없다. 동생의 마지막 장면만 반복하던 시계가 처음으로 선택지를 내밀었다.

[주인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02 / 두 번 접힌 빵 봉투

삼천 원의 용도. 아이에게 주려던 팔빵. 태주는 봉투가 접힌 모양을 보고 주머니에 넣었다.

유품이 되기 전에 찾아온 물건.

03 / 안테나 한 칸

현장 보고서는 외웠다. 하지만 동생의 휴대전화가 연결된다는 사실은 어느 보고서에도 없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 있다.

능력 · 감정

물건에 남은 마지막 기억을 읽는다.
보이는 것은 장면. 그 의미는 직접 알아내야 한다.

화양역, 18:30

출구를 안다고, 모두가 따라 나오는 건 아니다.



18:22

동생의 전화 / 돌아온 시각

18:30

서터 하강 / 균열 발생

그 뒤

방재실 → 배수로 → 지상 구조

이번 생의 동선



전생의 기록: 사망자 36명.
방재실에서 발견된 두
사람을, 이번에는 데리고
나왔다.

1화 동선을 옮긴 개념도. 실제 지하철역의 구조와 무관.

분실물 보관소

편의상 붙인 이름. 본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름을 부른다. 당신이 대답할 목소리로.

01

방송이 익숙해진다

안내 방송 다음에는 가족의 목소리. 가짜임을 알아도 대답이 먼저 나올 수 있다.

02

잠금장치를 믿지 않는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응답하면, 괴이는 그 자리에 나타난다.

03

얼굴보다 어긋난 곳을 본다

마트 조끼와 장바구니. 구두를 신고 있지만, 바닥에는 맨발 자국이 남는다.

“엄마 손 시려. 문 좀 열어 줘.”

횡단보도 건너편의 나

서른다섯의 얼굴. 마지막 출동 때의 작업복.



나는 살아 돌아왔는데,
누가 내 시신을 입고 왔지?

반환 내역

유품 반환 완료.

반환 비용: 잔여 수명.

미 납

일치

깨진 안전모. 회수반 작업복.
서울역의 잔해가 붙은 어깨.

불명

적의 흉내인가. 남겨진 자신인가.
청구서를 받으러 온 존재인가.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다. 다음 한 걸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다음에 찾을 물건

다음 의뢰부터는, 물건도 가만있지 않는다.



A / 한 짝의 운동화

주인을 향해 매일 한 걸음.
오늘 처음 천장을 향했다.

의뢰인: 화양역에서 구한 아이

B / 꺼진 휴대전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전화를
건다.
끊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가
사라진다.

남은 통화 시간: 알 수 없음

C / 퇴근 카드

매일 한 명이 먼저 퇴근한다.
남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잊는다.

수거 장소: 폐쇄된 길드 사무실

찾아야 할 건 물건일까.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일까.

1화의 인물·사건·소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인공 이름 한태주, 수연의 나이와 상세 프로필, 이 장의 후속 사건은 이번 설정집에서 확장한 내용입니다. 회귀와 횡단보도 인물의 정체는 미확정으로 남겼습니다.